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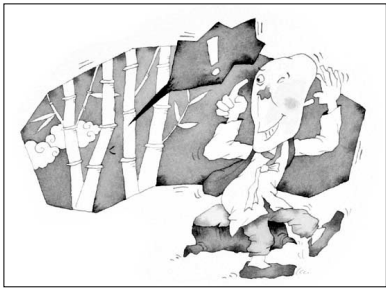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65> 임제선사가 탑전(塔殿)에서 열(?) 받다

해동 조계종 종조 도의국사의 다례재를 5월 28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모셨다. 삭발, 목욕재계하고 참석했다. 설악산 진전사에는 도의국사의 부도와 탑이 남아있다. 폐사지 탑전도 얼마전 복원을 마쳤다.

종조는 종도의 사상적 구심점이며 정체성 확립의 방편이다. 종조는 부처님과 같은 반열에 두고 있는 것이 종문 가풍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진전사 종조 부도탑의 참배인구는 하루에도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조계종 사부대중에게 종조가 어떤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방증이라 하겠다.

인근의 인기있는 해동제일성지 불정암 부처님 진신사리탑 참배와 아울러 종조도 의국사 부도탑 순례라는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부처님 제자로서, 또 종도로서 정체성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는 대대적인 인식전환 운동을 전개해야 할 시점에 온 것 같다.



그곳을 참배했다. 탑전(塔殿)에서 몸을 추스리며 주변의 풀과 나무들을 정리했다. 번민을 쉬니 위산선사가 준 화두가 저절로 참구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변을 청소하다가 땅바닥에 튀어나온 기와조각을 발견하였다. 그걸 치우기 위하여 뽑아들고서는 멀리 내던졌다. 그 기와조각이 대나무에 부딪치면서 '딱' 하고 울었다. 이 소리를 듣고서 그 자리에서 홀연히 깨웠다. 저절로 '깁깁깁' 하는 웃음이 나왔다. 그 대담 별거 아니네. 임제의현(?-867) 선사가 탑마선사의 부도탑에 이르러 되었다. 그 때 탑전에 사는 스님이 물었다. "화상은 부처님에게 먼저 절하십시오. 조사에게 먼저 절하십시오?"

이제 뭘 소리야. 뭘 묻자는 거야. 내가 대웅전을 들리지 않고 이쪽으로 바로운 것을 눈치라도 채면 안 되겠지.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였다. 어디 한번 무kena 달

조사 사리탑은 추모대상이자 깨달음의 공간 향엄선사, 사리탑 청소하다가 홀연히 깨쳐

조사 사리탑은 참배만을 위한 단순한 추모공간이 아니다. 깨달음의 공간이다. 부도탑 참배공덕으로 깨친 이의 대표적인 인물은 향엄지한(?-898)이다. 그는 키가 칠척이나 되고 아는 것도 많이 제 잘한 탓에 살았다. 그런 그에게 하루는 스승인 위산영유(771-853)선사가 느닷없이 질문을 던졌다.

"그대는 처음 부모의 태에서 갓 나와 동서를 아직 알지 못했을 때 본분의 일을 한 마디 일러 보시오." 이런 말재주나 잔머리를 굴려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선지(禪智)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기교만장하다가 그만 대답이 막 막하고 깨를 꼭 숙어야만 했다. 한참 후 정신을 추스르 스승에게 답을 청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아무리 궁리를 해도 진전이 없었고, 자존심도 상하고, 자신에게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 결국 결망을 싸야만 했다. 그리고 정처없이 길을 떠났다. 우연히 남양혜종(?-775) 국사의 사리탑을 지나게 되었고 자연스럽

아보자.

"부처와 조사 모두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도 가당찮은 질문을 하니가 대답도 거기에 걸맞게 해버린 것이다.

"화상께서는 부처님과 조사와 무슨 원수라도 댔습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완전 맹탕이군. 그저 탑만 지키고 있을 뿐 안목이라고는 눈곱만 큼도 없는 그야말로 '발중'이었다. 전혀 말귀를 못 알아 들었고 묻는 말마저 문문서답이다. 임제 스님은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묻지도 대꾸도 않고 열(?) 받아 참배까지 생략한 채 그 자리를 떠나버렸다. 그렇더라도 그냥 '뺑' 하고 튀어나올 것은 뭐람.

시탑자(侍塔者)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삼배나 마치고서 떠나실 일이지. 성깔하고는... 하긴 임제선사가 풀 먹인 옷 칼칼하게 세우고 찬바람 내며 다녔던 젊은 시절 이야기겠지. 결론은 부도탑도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어리석은 사람 멀리하라

미안마 삼장법사에게 듣는 '...행복하게 살기위한 법'

미안마의 삼장법사(三藏法師)인 우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이 보리수선원(02-517-2841) 초청으로 5월 29일 '현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위한 법'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이날 강의는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이 그대로 담겨있는 팔리어로 된 경전 강의를 접해서 눈길을 끌었다. 강의는 팔리어 경전 <망갈라수타(Mangala Sutta)>, 우리말로 <행복경>을 중심으로 다른 경전도 함께 인용되면서 진행됐다.

통역은 서울대학교 인문대 재학 중 미안마 법다따라마선원으로 출가한 마나빠가 스님이 담당했다. 강의는 이날 시작돼 6월 24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매일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강의내용을 요약했다.

<행복경> 첫 부분에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신 이유가 나타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것, 좋은 광경'을 보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겼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냄새나 맛이나 감촉'을 축복으로 여겼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대상, 듣는 대상, 냄새 맡고 맛보는 것을 놓고 어떤 것이 축복인가에 대해 오랜 세월동안 분쟁을 했다. 그리고 이 분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신과 범천(梵天)에게까지 이어졌고, 결국 천신의 왕인 천왕이 부처님께 그 답을 구했는데, 바로 이것이 <행복경>이다.

<행복경>은 좋지 않은 결과와 법을 제거하고 좋은 법과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말씀을 담고 있다. 이대로 수행하고 따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귀족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따르면 발전과 번영은 물론 열반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경 안에는 38가지 축복의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람(범부)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이를 구분

하는 사람이다. <행복경>에서는 물질과 정신 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다른 경전에서는 '자기수행과 도덕성이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자기수행'에는 종교적 의미와 세간적 의미의 자기수행이 있다.

종교적 의미에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을 말하며, 세간적 의미로는 각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말한다.

또 어떤 경전에서는 '지혜가 없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 부른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깊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이익과 번영을 망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과 번영을 망치는 사람, 기회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다.

또 다른 경전에서는 생각하고 떠올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 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사람, 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이 네 가지 경전을 요약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과 정신현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수행과 도덕성이 없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교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의지하면 몸과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고, 자기에게 존재하는 행복과 번영조차 잃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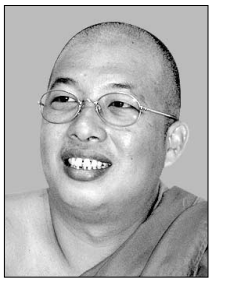
좋은 냄새나 나는 물건에 다른 물건을 놓으면 냄새가 배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좋지 않은 냄새가 배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강한 독을 가진 뱀을 피하듯이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이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을 봤을 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이것을 가능하게 할 때 최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자아의 마음은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아의 마음을 갖고 도와주는 것과 가까이 하고 교류하는 것은 분명 다른 것이다.

■ 우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은?

미안마에는 11명의 삼장법사가 있다. 삼장법사란 경장 율장 논장의 삼장을 단어 하나하나 기억하고 모두 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스님이다. 다시 말해 팔리어 경전 20권(8026쪽 분량)을 모두 정확히 외고, 그에 따른 주석서 등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한다.

삼장법사는 시험을 통과하는 스님이 7-8년에 한 명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 우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은 미안마의 이름 번째 삼장법사다.



팔리어경전 20권 모두 암기

미안마 11명 삼장법사 중 한명

우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은 비구계를 받고 나서 삼장법사가 되기 위해 13년간 6박 공부에만 매달렸다. 그리고 삼장법사 시험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 10년 간의 사미생활 역시 공부에 매진했다. 결국 23년간 공부에 매달린 끝에 삼장법사가 된 셈이다.

현재는 민공에 있는 탐마나라 절에서 삼장을 공부하는 150여 명의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민공은 물이 귀하고 의료 환경이 취약해 물을 공급하고 의료시설을 짓고 환자들을 돌보는 일도 하고 있다.

스님은 '한달간의 강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처님 지혜를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글 · 사진=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우간하말라 라카라 스님의 <행복경> 강의를 들은 불자들은 팔리어 경전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이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너는 누구인가? 너는 왜 여기 있는가?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받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세는 본래는 인내 지조를 보냅니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구 명동길 154-1 전화 010-6230-2113 ● 021396-2736

http://www.avat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법,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증폭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쿠니스님 특별우대! ▶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하계 특별수련안내

참나의 지복을 체험하는 여정

7, 8월 기간에 하계 순일프로그램 4단계 전과정을 24박25일 코스를 2차에 걸쳐 진행 합니다.

- ◆ 1차 : 7월 8일 - 8월 1일
- ◆ 2차 : 8월 2일 - 8월 26일

교육내용

- 무의식에 저장된 죄의식, 분노의 감정들을 녹임
- 미세한 감정들과 몸이 정화되는 과정
- 대상과 하나되어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과정
- 대상을 넘어 무심(심애)에 드는 과정

프로그램지도

- 순일 선생 : 현, 순일수련원장
- 전, 정신세계관 '삼매교실' 강의
- 전, 미네사 금강경 강의
- 전, 부산 자광선원 금강경 강의
- 저서 : 1.삼매 2. 발아할 두려움 없는 자유

● 수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http://www.soonil.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련문의 및 신청은 순일명상 홈페이지 '수련문의 및 신청'이나 전화 031)771-9765로 하시기 바랍니다.

순일명상

나의 病은 내가 고친다

언제까지나 약을 의지하고 병원만 다니시렵니까?

만가지 질병이라도, 고치기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병이라도 원인과 치료방법만 알면 돈 없이도 내 힘으로 완치 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 이용법, 자연 치료법, 요가운동 치료법, 프라나 치료법 등 여러가지 치료법을 무료로, 자세히, 정성껏 알려 드립니다.

위장병같이 오장육부에서 생긴병, 고혈압, 당뇨, 아토피, 각종 암병도 치료 가능합니다.

병이란 나의 무지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무료 상담 031)769-7842
010-3336-3745

- 매일경제신문 인제 경영학 연재 -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져나와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욱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소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법증과 압박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나와, 건강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삭법

똥통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속내에 쌓이고 관절 사이에서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몸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액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퍼져 쓰러져버린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록원 (팔보효소)